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WHITE FOX

가제 : 하얀 여우 달리아

저자(번역가) : Chen Jiatong(Jennifer Feeley)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9-12세/판타지



**\* 중국에서 처음 발행된 베스트셀러 소설, 수상 경력이 있는 번역자가 영어로 옮긴 2부작 시리즈**

**\* 매력적인 흑백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중국 신에 작가의 판타지 소설**

눈과 얼음이 가득한 북극, 깊은 굴속에 행복하게 살던 새하얀 여우 달리아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엄마 아빠가 사냥꾼이 쏜 총에 맞고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전, 엄마는 달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집 가장 구석진 곳,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돌을 찾아서 그 돌이 이끄는 대로 찾아가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엄마의 말에 달리아는 심장이 쿵쿵거린다. 사실 꽤 오래 전부터 한 가족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외딴 사람의 집을 틈 날 때마다 찾아가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달리아의 소중한 취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엄마는 먼 옛날, 흰 여우들의 수호성인인 ‘울라’가 만들었다는 전설 속의 보물을 꼭 찾으라고 당부한다. 중국에서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되었다가 시리즈로 재출간되며 큰 사랑을 받은 이 판타지 소설은 중국 아티스트 비올라 왕(Viola Wang)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흑백 일러스트가 더해져 인간이 되고 싶은 동물들의 모험이 더욱 환상적으로 다가온다. 갑자기 오갈 곳이 없게 된 달리아가 무작정 떠난 보물 찾기 여행이 예상치 못한 무서운 적들과 꼭 필요한 순간에 속속 나타난 좋은 친구들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달리아가 처음 인간을 가까이서 본 건 아침 일찍 등교하는 꼬마들 두 명이 엄마 손에 이끌려 아빠 차에 타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였다. 인간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큰 도시와 똑 떨어진 숲 한가운데 있는 그 집은 굴뚝에서 뿜게뿜게 솟아나는 연기와 멋지게 꾸며진 정원이 늘 달리아의 시선을 사로 잡았지만, 그 날 깔깔대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가족의 모습을 본 순간 달리아는 이상한 두근거림을 느꼈다.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저런 집에서 함께 살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온통 채웠다. 지금까지 달리아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계속 이사를 다녀야 했다. 아빠는 흰 여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바닥 깊숙이 파묻힌 월석을 찾은 후에야 달리아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울라의 보물

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인 그 월석을 달리아의 부모님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물들이 호시탐탐 공격을 해왔던 것이다. 돌을 발견하고 길에 나선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한 무리의 험악한 북극 여우들에 에워싸인 채 절벽에 내몰린 달리아는 엄마의 유품이나 다름 없는 이 소중한 돌을 빼앗기느니 죽는 편이 낫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까마득한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착한 물개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다.

달리아의 사연을 들은 다니엘은 그 월석이 엄마가 말한 보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리저리 고민하던 두 사람은 마침내 달빛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환한 달빛 아래 월석을 두면, 돌에서 신비한 빛이 흘러 나와 보물이 있는 쪽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돌이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던 두 친구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른다. 숲을 지키던 마음씨 좋은 경비 대원에게 발견되어 다시 한번 목숨을 건진 달리아는 고마운 마음을 전할 틈도 없이 충격에 빠진다. 누군가 이 경비 대원의 가족 전체를 잔인하게 공격하여 은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놀란 와중에 그의 아이만 가까스로 구해낸 달리아와 다니엘은 근처 마을로 찾아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이를 두고 돌아온다. 절벽에서 만났던 여우 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달리아는 전설 속 보물을 노리는 동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이 여행이 처음 떠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체감한다. 그래도 다니엘 같은 좋은 친구가 움츠러드는 달리아의 마음에 큰 빛이 되어주었다. 빛을 따라 비엔 숲에 도착한 다니엘과 달리아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 큰 병에 걸린 족제비 안켈과 만난다. 건강은 극도로 나빠졌지만 지금까지 만난 어떤 동물들보다 총명한 안켈은 자신을 구해주고 돌봐준 회색 토끼 리틀빈을 소개한다. 이렇게 넷이 된 달리아 일행은 모두 함께 올라의 보물이 있다는 ‘마법의 숲’을 향해 길을 떠난다. 경비 대원을 공격한 것 외에 사실 절벽을 벗어난 이후 북극 여우 떼가 한 번도 다시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조용히 뒤쫓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달리아의 앞에 마침내 그 사악한 무리의 대장, 칼이 등장한다. 그림자처럼 추적하는 대신 당당히 월석을 내놓으라고 덤비는 칼과 직접 맞서 싸우고 소중한 돌을 지키기로 마음 먹은 달리아는 모든 힘을 끌어 모아 싸움에 임하는 칼에게 힘없이 당하고 만다. 그런데 돌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을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어디선가 붉게 빛나는 털을 가진 낯선 늑대 무리가 나타나 달리아를 돕는다. 특히 늑대 떼의 대장 아사스의 맹활약으로 칼과 여우 떼를 물리치는데 성공한 달리아 일행은 이 늑대들에게도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래동화처럼 인간을 닮은 동물들을 통해 꿈과 희망, 우정의 가치를 스릴 넘치는 모험 이야기로 담아낸 이 소설은 총 6권의 시리즈로 이어진다.

#### <저자 소개>

첸 지아통(Chen Jiatong)은 북경 항공항천대학에서 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제 무역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에 쓴 위 시리즈는 중국의 대표적인 아동서 출판사인 ‘Jieli Publishing House’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제목 : THE 1,000 YEAR OLD BOY  
가제 : 천 살이 넘은 소년  
저자 : Ross Welford  
출판사: Harper Collins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8년 1월 11일  
분량 : 400쪽  
장르 : 9-12세/문학



- \* “작가 특유의 따뜻함과 위트, 영리함이 가득한 멋진 이야기” – 『The Girl of Ink and Stars』의 작가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
- \*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며 가족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기막히게 훌륭한 소설” – 『The Many Worlds of Albie Bright』의 작가 크리스토퍼 엠티

철없이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 중에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보기보다 훨씬 성숙하고 나이에 비해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 어쩌면 그런 아이들 중에는 겉모습은 어리지만 수백,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놀라운 존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알피가 바로 그런 아이다. 겉으로 보이게는 영국의 어느 외진 숲에 자리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열한 살짜리 소년으로 보이지만 사실 알피는 1014년부터 열한 살이었다. 같은 모습, 같은 나이로 1,000년이 넘게 살아온 것이다. 바이킹이 영국 땅을 침략하는 것도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찰스 디킨스와 직접 만난 적도 있는 소년, 전쟁은 몇 번이나 치렀는지 다 셀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역사’ 알피는 뱀파이어도 아닌데 어쩌다 불멸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먼 옛날, 알피의 아버지가 발트 해 연안에서 신비한 액체가 담긴, 일명 ‘라이프 필’이라 불리는 다섯 개의 수정 구슬을 얻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신기한 이야기는 어쩌다 엄마, 고양이와 함께 이 땅에서 천 년을 살아온 소년이 처음으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사연을 들려준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알피에게 다가온 두 친구, 에이든과 록시가 알피와 함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죽음이 없는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원래 누구보다 용맹한 전사였지만 안정적인 삶을 위해 상인이 된 알피의 아버지는 장사 때문에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먼 동방에서 온 사람을 도와준다. 강도를 당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그를 구해준 다음에야 동양의 연금술사가 만든 불멸의 약을 한 자루 가득 담아 도망친 조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알피의 아버지는 그 약이 담긴 구슬을 다섯 개 얻는다. 몸에 피를 내고, 구슬 속에 담긴 진한 액체를 피와 문지르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팔을 칼로 두 번 그어 구슬 속 액체를 들이 부은 아버지는 죽지 않는 자, ‘네버 데드’가 되었다. 하지만 약을 건넨 사람이 경고한 대로, 그런 신비한 묘약이 있다는 소문은 머나먼 바다와 대륙을 건너 세계 곳곳에 이미 퍼져 있었고 그 비슷한 물건을 가진 사람만 보면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알피의 아버지는 남은 네 개의 구슬을 감춰두고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1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아이까지 낳게 되자 가족에게까지 숨길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알피의 엄마에게 구슬의 비밀을 털어놓고, 귀중한 구슬 하나를 깨뜨려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나머지는 알피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쓸 수 있도록 감춰두기로 했지만 사람들은 알피 부모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비루한 처지였던 알피의 엄마가 재산도 많고 외모도 준수한 남자와 갑자기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팠던 사람들은 흠 잡을 곳이 없나 괜히 이리저리 들쭉거리기 시작했고, 알피의 아버지가 ‘늙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만다. 사태를 깨달은 알피의 부모님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 영국 땅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운다. 남은 구슬 3개와 알피를 모두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각각 다른 배에 오르기로 한 엄마와 아빠는 집을 나선 그 날이 서로를 본 마지막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어린 알피를 품에 안고, 꿈꿨던 구슬과 함께 조심스럽게 배에 오른 엄마는 이후 두 번 다시 아빠를 보지 못했다. 전날 아빠와 큰 말다툼을 벌였던 형상국은 얼굴의 사내가 배에 뒤따라 탔다는 사실이 영 의심스럽지만 증거도 없었다. 알피가 겨우 11살에 ‘네버 데드’가 된 건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다.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엄마의 당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라이프 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온 마을을 불에 태워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일당이 나타나 엄마와 산속 동굴로 겨우 몸을 숨겼던 날 알피는 엄마 몰래 구슬 하나를 깨뜨린다. 아빠 엄마의 팔에 난 상처처럼 작은 칼로 팔을 그은 후 구슬 속에서 나온 액체를 상처에 바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한 순간 남은 귀중한 구슬 두 개 중 하나가 굴러가 깨지는 참사가 벌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묘약을 이대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든 알피는 바로 옆에 있던 고양이 앞발에 칼로 살짝 상처를 내고 쏟아진 액체를 문지른다. 그렇게 알피와 고양이, 그리고 엄마는 하나 밖에 남지 않은 구슬을 보관하면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 하지만 알피 가족은 되도록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은둔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를 먹지 않는 모자를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 때문에 계속 이사도 다녀야 했다. 라이프 펄에 담긴 묘약은 나이 먹는 것을 중단시킬 뿐 영생을 보장하는 약은 아니었기에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일찌감치 저 세상으로 갔겠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모자는 그 긴 세월을 무사히 보냈다. 하지만 그 숲 속 오두막에 큰 불이 나고— 결국 엄마는 알피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아빠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좁아 터진 집이 있는 새 동네로 이사를 온 에이든은 빈 집을 찾아다니며 쓸만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 괴짜 이웃 록시와 친구가 된다. ‘마녀’가 산다는 록시의 말에 호기심으로 따라나선 날, 에이든은 처음으로 알피를 발견한다. 무려 천 년을 살았다는 알피의 말을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 않던 에이든과 록시는 결국 거짓말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고, 단 하나 남은 라이프 펄로 이제 생을 마치려고 하는 알피를 도와 주기로 약속한다. 기발한 소재와 세 친구의 맑고 쾌활한 유머, 너무 오래 살아버린 소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잘 어우러지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로스 웰포드(Ross Welford)는 저널리스트 겸 TV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었다. 저서로는 코스타 상 결승에 오른 베스트셀러 『TIME TRAVELLING WITH A HAMSTER』 등이 있다.